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 근로여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송인옥, 원서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elf-Rated Health,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Babyboomers in Korea: Multiple Group Analysis according to Their Work Status

Inuk Song, Seojin Won*
Dept. of Social Welfare, Daegu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근로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6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2차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은 6차년도 조사대상자 9,913명 중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2,479명이다. 연구방법은 각 변수들 간의 경로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우울의 매개효과는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였다. 주관적 건강,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근로여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자유모델과 제약모델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베이비부머가 자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감은 낮아졌다. 그리고 우울감이 높은 베이비부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져, 우울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근로를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근로를 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우보다 높았다. 또한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근로를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모형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우울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으로써 주관적 건강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며 근로활성화를 통해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babyboomers and to address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self-rated health-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Further,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any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babyboomers according to work status. Researchers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the 6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 The final sample was 2,479 babyboomers born between 1955 and 1963.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was done by the significance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Researchers also compared an unconstrained model with constrained model for multiple group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self-rated health was a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life satisfaction of babyboomers. In addition,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self-rated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babyboomers. Multiple group analysis demonstrated, in the non-working babyboomer model, the effects of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effect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was stronger than that of the working babyboomer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established the importance of health and working status in addressing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babyboomers.

Keywords : Babyboomer, Babyboom Generation, Self-Rated Health,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Work Status

*Corresponding Author : Seojin Won(Daegu Cyber Univ.)

email: wseojin@dcu.ac.kr

Received March 12, 2020

Accepted June 5, 2020

Revised April 14, 2020

Published June 30, 2020

1. 서론

2018년 말 기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727만6천여 명으로, 같은 해 65세 이상 노인인구(765만408명)와 비슷한 규모이다. 이는 약 10년 뒤 지금의 노인인구와 비슷한 규모의 노인 집단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가장 빠른 1955년생 71만여 명이 노인집단에 진입하는 2020년은 인구 변화 '쓰나미'의 원년으로, 2028년까지 한 해 69만 명에서 92만 명의 베이비부머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게 된다[1]. 급격한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들 가운데 베이비부머의 실제 삶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대한 질적 평가, 즉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주관적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의 대부분의 관심과 논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3], 은퇴 이후 사회참여[4-5], 경제상황[6-7]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뿐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각각의 요인들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건강상태는 자립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8]. 하지만 OECD 건강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SRH: Self-Rated Health)'는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 개인이 자각하는 건강상태는 이들의 근로지속여부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각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신체적 건강상태와 함께 정신건강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인 우울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베이비부머로 대상을 한정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논문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0-11], 건강[12], 개인의 생활양식[13-14], 사회적 관계망[15-16], 사회경제적 상태[6,17-19] 등이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40-50대 중년남성들은 우울, 불안, 피로, 자신에 대한 연민,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불행감 등을 느끼며, 특히 우울감이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20], 이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이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21].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60대 이후 노년층에서의 우울경험 비율이 가장 높아, 노년층에 접어든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22].

베이비붐 세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향후 일생에서의 건강유지,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그리고 고용 및 고용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면서도 중요하다[23]. 이 가운데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지속적인 참여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다. 베이비붐 세대 역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지속의사가 있다[24]. 하지만 근로여부가 불확실하고 이로 인한 불안감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노후가 시작되는 연령을 평균 69.5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25], 노후시작시점과 적정은퇴시점 역시 건강상태 악화[26]나 소득상실 등으로 취약한 상태에 들어서기 시작할 때부터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노년학 분야에서 진행된 많은 선행연구는 스스로를 노후 혹은 비노후로 인지하는지 여부가 근로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며[27-28], 노화의 주관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경험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단순히 소득상실의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삶의 기회에서의 배제를 포괄한다는[29]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 세대는 앞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하기 보다는 동일하거나 감소하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근로활동은 소득을 넘어 자신의 존재감과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건강이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근로여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이 악화되면 근로를 억제하는 동시에 본인의 치료와 휴양의 부담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30]. 이러한 점에서 근로여부와 건강, 삶의 만족도와 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

이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노년기 진입을 시작한 베이비부머의 근로여부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베이비부머의 근로여부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달라지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에 조사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6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2차자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2006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10,254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6차년도의 조사대상자는 9,913명으로 79.6%의 표본유지율을 보인다[31]. 이 중에서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2,479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2.2 변수의 측정

주관적 건강이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는 보건 및 건강 불평등 분야의 연구들은 물론, 사회과학분야의 많은 연구들에서 실제 건강상태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32].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응답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1(매우 나쁨)에서 5(매우 좋음)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매개변수인 우울은 CES-D-10을 활용하였으며, 지난 1주일간의 느낌이나 행동에 관한 10가지 문항(예: 마음이 슬픔, 모든 일에 대해 힘든 느낌 등)에 대해 1(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들지 않았다)에서 4(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다)로 응답한 것을 0(아니다)과 1(그렇다)로 재코딩한 뒤 합산한 점수를 활용하여 0에서 10의 분포를 보인다. 수치가 클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0에서

100으로 응답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수치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절변수인 근로여부는 현재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를 0, 취업자를 1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연령, 연간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으며, 결혼상태는 배우자 없음을 0, 배우자 있음을 1로 코딩하였다. 종교는 종교가 없는 응답자를 0, 종교가 있다는 응답자를 1로 재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를 0, 고등학교 이상을 1로 코딩하였으며, 연간 가구소득은 연속변수를 투입하였다.

2.3 분석방법

기술통계와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STATA 15.0을 활용하였다. 이분변수의 경우 퍼센트를,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근로여부에 따른 두 집단간의 차이는 카이제곱과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는 카이제곱과 함께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Comparative Fit Index(CFI)와 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RMSEA와 SRMR가 0.5 이하, CFI가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33]. 이후 각 변수들 간의 경로분석을 통해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우울의 매개효과는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였다. 근로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 우울, 삶의 만족도의 집단간 차이는 자유모델(Unconstrained Model)과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베이비부머를 근로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 베이비부머가 83.7%인데 반해 일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남녀비율이 55.4%와 44.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비율이 높았다($p < .001$). 배우자의 유무는 배우자가 있을 때 근로하지 않는 경우(89.6%)와 근로하는 경우(89.3%)가 비슷했다. 일하지 않는 베이비

부머가 일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에 비해 종교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43.1% vs. 36.5%, $p < .01$), 학력 수준은 일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중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77.0%로,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70.0%보다 높았다($p < .001$). 연령 평균은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가 58.22세,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가 57.46세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근로하는 베이비부머의 연간 가구소득이 약 5천만원으로 근로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연간 가구소득보다 높았으나(약 4천1백만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근로하지 않는 베이비부머가 3.26,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가 3.52로 일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가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우울감은 일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가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보다 낮았고(2.24 vs. 2.88, $p < .001$),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67.61 vs. 64.76, $p < .00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Mean, (Standard Deviation))

Measures	Work Status		χ^2/t	
	Not at Work	At Work		
Gender	Male	16.35%	55.4%	329.94***
	Female	83.7%	44.6%	
Marital Status	No Spouse	10.4%	10.7%	0.44
	Has Spouse	89.6%	89.3%	
Religion	No Faith	56.9%	63.5%	9.55**
	Has Faith	43.1%	36.5%	
Education	Middle School and below	30.0%	23.0%	13.88***
	High School and more	70.0%	77.0%	
Age	58.22 (2.64)	57.46 (2.58)	0.74	
Yearly Household Income	41M (2886.06)	50M (3186.30)	1.91	
Self-Rated Health	3.26 (0.82)	3.52 (0.65)	31.38***	
Depression	2.88 (2.66)	2.24 (2.44)	17.16***	
Life Satisfaction	64.76 (15.91)	67.61 (13.14)	39.44***	

* $p < .05$, ** $p < .01$, *** $p < .001$

3.2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다($\chi^2(12)=49.81(p < .001)$, RMSEA=0.050, CFI=0.955, SRMR=0.022).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의 경로분석 결과는 Fig. 1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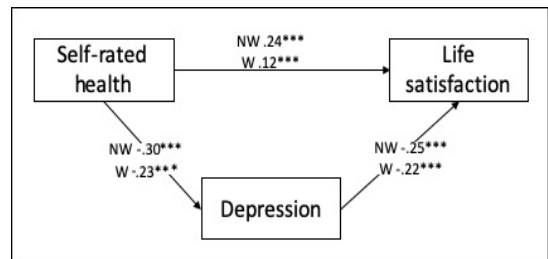


Fig. 1. Standard coefficients of key variables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감은 감소하며, 우울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 이는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와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가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주관적 건강상태($\beta = .24$ vs. $\beta = .12$, $p < .001$)와 우울($\beta = -.30$ vs. $\beta = -.23$, $p < .001$)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고,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 vs. $\beta = -.22$, $p < .001$). 또한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성별($\beta = .15$, $p < .001$), 결혼상태($\beta = .11$, $p < .01$), 교육수준($\beta = -.10$, $p < .01$), 나이($\beta = .10$, $p < .01$), 연간소득($\beta = .14$, $p < .001$)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결혼상태($\beta = .14$, $p < .001$)와 연간소득($\beta = .16$, $p < .001$)만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Table 2. Standard Coefficients for SEM Model

Paths	Not at Work	At Work	
	Self-Rated Health	.24***	.12***
Depression	-.25***	-.22***	
Life satisfaction <-	Gender	.15***	.04
	Marital Status	.11**	.14***
	Religion	.02	.30
	Education	-.10**	-.02
	Age	.10**	-.01
	Yearly Household Income	.14***	.16***
	Self-Rated Health	-.30***	-.23***
Depression <-	Self-Rated Health	-.30***	-.23***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은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와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 모형에서 모두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감이 낮았고, 우울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3.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among Key Variables

Paths		Not at Work			At Work		
		DE	IE	TE	DE	IE	TE
Life Satisfaction <-	Self-rated health	4.68***	1.41***	6.10***	2.41***	1.04***	3.45***
	Depression	-1.47***	-	-1.47***	-1.20***	-	-1.20***
	Gender	6.23***	-	6.23***	1.01	-	1.01
	Marital status	5.61**	-	5.61**	6.01***	-	6.01***
	Religion	0.62	-	0.62	0.80	-	0.80
	Education	-3.34**	-	-3.34**	-0.55	-	-0.55
	Age	0.60**	-	0.60**	-0.3	-	-0.3
	Yearly household income	0.00***	-	0.00***	0.00***	-	0.00***
Depression <-	Self-rated health	-0.96***	-	-0.96***	-0.87***	-	-0.87***

* $p < .05$, ** $p < .01$, *** $p < .001$

다중집단분석 결과, 자유모델의 $\chi^2(12)$ 은 49.81($p < .001$), RMSEA는 0.050, CFI는 0.955, SRMR은 0.022였다. 제약모델의 $\chi^2(21)$ 은 86.70($p < .001$), RMSEA는 0.050, CFI는 0.914, SRMR은 0.033이었으며, $\Delta\chi^2(9)=36.89(p < .001)$ 로 나타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베이비부머와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 모형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근로여부에 따라 이들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가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감은 감소하며, 우울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며, 신체적 준비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34], 우울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35]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며 [7,12], 신체건강이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 [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우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근로를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와 근로를 하는 베이비부머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신체적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36]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적 건강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결되어 발생하는 우울은 노년기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정신건강상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베이비부머의 취약한 건강상태는 우울감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것은 우울감을 개선시키며 결국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근로유무 [37]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며, 주관적 건강상태 [7], 심리적 요소인 우울감 [38]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 모델에 비해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모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우울과 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의 경로계수가 더 컸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근로여부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정신건강이나 행복감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가 경제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보다 더욱 크게 나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근로여부에 따라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노년기의 근로는 단순히 소득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활동의 참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로를 통해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이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는 건강상태를 증진할 것이고, 이는 결국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경제 활동을 통해 가족이나 지역사회,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벗어나 독립적인 노년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자아실현이나 삶의 만족을 포함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충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17].

이상의 연구결과는 베이비부머의 우울 완화와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으로써 근로활동, 주관적 건강상태의 개선, 이를 통한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도 및 근로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노년기 근로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도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층적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건강은 향후 일생에서의 건강유지, 건강한 생활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고용 및 고용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조기은퇴 또는 종사상 지위의 하락,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한 빈곤화와 그로 인해 다시 건강문제의 악화를 초래하는 건강과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노년기의 의료비 지출 증가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및 공적노후보장 확대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건강 사유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탈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여부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바, 베이비부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는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민간과 공공 영역의 융합형 일자리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오는 2035년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158만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만큼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는 불가피하다[39]. 또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신노년세대 다수는 퇴직시점과 연금개시 연령 간 정책공백이 있어 퇴직 후 일자리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한 베이비부머들에게 기존의 단순 노무직은 다양한 욕구와 역량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이고 쌍방향적인 재정을 토대로, 민간과 공공영역이 융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셋째, 50플러스센터를 베이비부머지원거점센터로 활용해야 한다. 취미생활프로그램 위주인 현재의 노인평생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이 반영된 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 주체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은퇴와 노년기 진입, 장년과 노년 사이에 끼인 베이비부머들은 경계가 모호해서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민간유료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50플러스센터를 베이비부머지원거점센터로 활용하고, 노후재설계프로그램, 은퇴준비교육, 취업/창업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근로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노년기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여러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2차 자료를 활용한 한계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중단연구를 통해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는 후속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Korean registered

- population, 2019.
- [2] J. H. Son, M. J.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34, No.1, pp.43-71, 2018.
DOI: <https://doi.org/10.16935/ejss.2018.34.1.003>
- [3] S. D. Jung, M. J. Ku,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 Comparison among Babyboomers,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52, pp.305-324, 2011.
DOI: <https://doi.org/10.21194/kjgsw..52.201106.305>
- [4] D. J. Kim, N. H. Kim, K. J. Do, "Activities of Baby Boomers on Quality of Lif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1, pp.1233-1248, 2020.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1.1.90>
- [5] E. K. Jung, J. K.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Baby Boom Generation' Leisure and Preparation for Old Aged on Life Satisfaction and Moderated Regression for Spouse Suppo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0, pp.501-512,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0.501>
- [6] H. H. Lee, H. J. Song, H. H. Yoon, K. H. Lee, "The Relationship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old Aged' Asse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1, pp.71-79,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11.071>
- [7] J. N. Yoo, "A Longitudinal Analysis o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Middle-Old Age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68, pp.331-356, 2015.
DOI: <https://doi.org/10.21194/kjgsw..68.201506.331>
- [8] Y. H. Oh, H. O. Bae, Y. S. Kim, "A Study on Physical and Mental Function Affecting Self-perceived Health of Older Perso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6, No.3, pp.461-476, 2006.
- [9]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 [10] S. L. Kim, K. H. Ju, S. D. Jung, "The Effects of Income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65, pp.103-136, 2018.
DOI: <https://doi.org/10.15300/jcw.2018.65.2.103>
- [11] S. Y. Jeong,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of Middle-aged Adults", *Association of Life-span Studies*, Vol.8, No.3, pp.117-136, 2018.
DOI: <https://doi.org/10.30528/jolss.2018.8.3.006>
- [12] S. L. Kim, J. H. Kim, K. H. Ju, "The Effect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Age-friendly Public Service Resources and A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9, No.2, pp.65-92, 2018.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18.49.2.65>
- [13] H. Brockmann, "Why Are Middle-aged People So Depressed? Evidence from West German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97, No.1, pp.23-42, 2010.
DOI: <https://doi.org/10.1007/s11205-009-9560-4>
- [14] H. Tanaka, Y. Sasazawa, S. Suzuki, M. Nakazawa, H. Koyama, "Health Status and Lifestyle Factor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in Middle-aged and Elderly Japanese Adults: A Seven-year Follow-up of the Komo-Ise Cohort Study", *BMC Psychiatry Research Paper*, pp.11-20, 2011.
- [15] B. K. Kim, Y. J. Ha, S. S. Choi, "A Vertical Study on the Factors Which are Influenced on Depression of the Aged: Focusing on Physical · Psychological · Social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4, No.1, pp.115-132, 2014.
- [16] Y. K. Oh,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 the Impact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of the Working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6, pp.271-280,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6.271>
- [17] S. A. Park, H. M. Jung, M. H. Cha,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3, pp.530-541,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3.530>
- [18] I. Song, S. Won, "Effect of Income on Depression of Korean Babyboomers: Testing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according to Ge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7, pp.587-597,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7.587>
- [19] Y. R. Lee, S. J. Lee, "Factors Influencing the Asset and the Income Poverty of the Elderly: Focusing on 'Baby Boomers' and 'Liberation and Korean War Gener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57, No.2, pp.111-157, 2018.
DOI: <https://doi.org/10.22418/JSS.2018.12.57.2.111>
- [20] J. I. Lee, K. H. Kim, S. H. Oh,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a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15, No.3, pp.422-431, 2003.
- [21] S. S. Jung,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cteric Syndrome, Job, Stress, and Mid-life Crisis in Middle-age Men,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Busan, Korea, 2015.
- [22] S. J. Jung, "The Influence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Income and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4, No.1, pp.115-139, 2019.

- DOI: <https://doi.org/10.21194/kjgsw.74.1.201903.115>
- [23] Y. K.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Employment, Subjective Expectation and Quality of Life in the Middle-Old Aged", Conference on Employment Panel, Korea, pp.877-891, 2016.
- [24] S. J. Lee, Y. J. Kim, "A Study on Predictive Factors of Wishing to Work in Old Age of the Middle and Old Aged",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8, pp.209-218,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8.019>
- [25] H. J. Song, R. Im, S. H. Wang, E. Y. Lee, The Realities of Economic Life and Preparation for Old Age Among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The 7th (2017) Basic Analysis Report on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Vol.1,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Korea, pp.1-222, 2018.
- [26] P. Meadows, "Retirement Age in the UK: A Review of the Literature",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No.18, 2003.
- [27] W. H. Ng, Thomas, C. F. Daniel, "Age, Work Experience, and the Psychological Contrac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30, No.8, pp.1053-1075, 2009.
DOI: <https://doi.org/10.1002/job.599>
- [28] A. Jos, E. S. Scott, T. M. Stefan, "Tales of the Unexpected: Integrating Career Shocks in the Contemporary Careers Literature", *SA Journal of Industrial Psychology*, Vol.44, No.1, pp.1-10, 2018.
DOI: <https://doi.org/10.4102/sajip.v44i0.1503>
- [29] J. H. Kim,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on Atypical Worker's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Comparative Analysis with Typical Worke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7, No.3, pp.398-432, 2017.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7.37.3.398>
- [30] S. H. Seok, "The Effect of Retirement on Health",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11, No.1, pp.81-102, 2011.
- [31]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019 User's Guide, Eumseong, Korea: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pp.1-2. 2019.
- [32] Y. H. Choi, "Is Subjective Health Reliable as a Proxy Variable for True Health? A Comparison of Self-rated Health and Self-assessed Change in Health among Middle-aged and Older South Korean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6, No.4, pp.431-459, 2016.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6.36.4.431>
- [33] L. Hu,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6, No.1, pp.1-55, 1999.
DOI: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34] S. H. Park, S. H. Kang, "The Effect of Combination Relationship of Factors for Old-age Preparation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fsQCA)", *GRI review*, Vol.20, No.4, pp.1173-196, 2018.
- [35] A. Gigantesco1, C. Fagnani1, V. Toccaceli1, M. A. Stazi1, F. Lucidi, C. Violani, A. Picardi1,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Life and Depression Symptoms by Gender", *Front Psychiatry*, 2019.
DOI: <https://doi.org/10.3389/fpsy.2019.00419>
- [36] Y. J. So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between Urban and Rural Older Adults: Focusing on Adult Children Network and Social Network", *GRI REVIEW*, Vol.12, No.3, pp.311-339, 2010.
- [37] S. Y. Kim, K. J. Moon, S. J. Chang, "Exploring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Baby Boomers by Using Multi-Level Analysi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1, No.4, pp.391-421, 2016.
DOI: <https://doi.org/10.21194/kjgsw.71.4.201612.391>
- [38] M. A. Kobau, M. A. Safran, M. M. Zack, D. G. Moriarty, D. Chapman, "Sad Blue, or Depressed Days, Health Behavior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 Vol.2, No.40, pp.1995-2000, 2004.
DOI: <https://doi.org/10.1186/1477-7525-2-40>
- [39] S. L. Kim, C. H. Lee, G. S. Byun, S. H. Lee, H. K. Shin, H. J. Kim, J. H. Min, "A Study on Labor Market Forecast of New Older Generation and Estimation of Job Need",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Research Report,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Korea, Vol.19, No.3, pp.1-218, 2020.

송 인 옥(Inuk Song)

[정회원]



- 1999년 8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철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지역복지

원 서 진(Seojin Won)

[정회원]



- 2004년 5월 :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M.S)
- 2009년 12월 :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Work (Ph.D)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정신건강